

### 唐紙



由唐朝傳入的工藝紙都稱為唐紙、其後貼於和室拉門上的紙也稱為唐紙。原料的紙為以抄紙方式製造的越前和紙亦或黑谷和紙為主。版木因不使用拓擦板故刻度較深。單手就能凹摺出痕跡感覺相當柔軟。在京都的寺院和離宮等有許多自古傳承下來由唐紙製成的木版畫、其製紙工程與版畫的雕刻工程都被視為傳統技術而承傳下來。

製作：京都市

### 唐紙



从唐朝传来的细工纸称为唐纸、之后的日式拉门用纸也被称作“KARAKAMI”（汉字仍写作唐纸）。原料纸使用手工制成的越前和纸或是黑谷和纸。由于不抹平印刷板木、因此雕刻轮廓很深。仅用手掌抚过能显出柔和的质感。在京都、寺院和离宫等需要用古时木版制作的“KARAKAMI”、因此在造纸和版木雕刻方面传统技术都得到了传承。

制作：京都市

### 당지(금박,은박을사용한무늬있는고운종이)



당나라에서 전래된 세공지를 당지라고 부르는데 후에 후스마가미(맹장지에바른종이)를 '가라가미'라고부르게되었다. 원재료인 종이는 손으로 만든 에치젠와시(에치젠에서 만든 일본종이) 또는 구로타니와시(구로타니에서만든종이)다. 판목은 바렌 (판목에먹을칠해서종이를뒹고그위를문지르는 도구)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조각이 깊다. 손바닥으로 문지르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교토에서는 절이나 별궁 등 예로부터 전해지는 목판으로 만드는 '가라가미'가 필요하여 제지공정이나 판목 조각 공정에서 전통적인 기술이 계승 되어져 왔다.

교토시 제작

### Karakami (Paper for sliding doors)



*Karakami* used to refer to craft paper that came from the Tang dynasty of China, but later the paper used for sliding doors came to be called by the same name. The paper used is handmade *Echizen-washi* or *Kurotani-washi* paper. No *baren* (hand tool used in woodblock printing) is used, so the grooves in the woodblock are cut deeply. The paper is pressed with the palms of the hands, giving it a soft feel. *Karakami* made using old woodblocks is required in Kyoto for temples and imperial villas, and the production process and printing process both use traditional techniqu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over the generation.

Produced by City of Kyoto